“보현행 담은 떡국떡으로 새해 자비를”

보현회, 1월 7~25일 이웃 위한 떡 판매

보현회 ‘사랑의 나눔’ 떡 판매
2,240kg 햅쌀로 지은 최고급 재료
수익금, 소년소녀가장에 교복 지원
회원 가족들 동참, 36년 자비행


떡국떡을 담으며 보현회 회원들이 활짝 웃고 있다. 매년 보현회는 소년소녀가장들의 교복 맞춤을 위해 떡을 판매하고 있다.

새해 떡국에 사랑을 담는 이들이 있다. 부산 보현회(회장 안성이)다. 보현회는 매년 ‘특별한 교복’을 구입하기 위해 떡국떡을 제작해 판매한다. 36년 동안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자비행을 펼쳐온 보현회가 학생들의 눈물에 마음 아파 시작한 일이다. 교복을 맞춰준 지 벌써 16년 세월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소 인연을 맺고 있던 성우원, 평화재활원, 천마재활원,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치매노인센터 더불어 사는 집, 국립마산(결핵)병원, 장애인을 위한 한마음직업재활원 등에 떡을 무료로 전달하며 새해 건강을 기원한다.

그들의 판매처는 따로 마련된 따뜻한 가게가 아니다. 아파트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떡을 판매한다. 1월 12일, 칼바람이 무섭게 불었던 날씨에도 부산 대연동 대우아파트를 찾은 회원들은 총 60포의 떡을 팔았다.

그들은 ‘생각보다 적은 양을 팔았다’는 질문에 “떡은 생물(生物)과 같아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지어서 팔면 재고가 남아 맛이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보현회 회원들은 아침 첫차를 타고 부산 좌천동에 위치한 보현정사를 매일 찾는다.

오랜 세월 정성과 노하우가 쌓인 이유일까? 노상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도 주문처가 곳곳에 있다. 회원들은 직접 배달하는 동시에 주문자들에게 떡 판매의 취지를 설명해줘 ‘나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1월 16일 보현정사에서 떡 배달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들과 안성이 회장을 만났다. 안성이 회장은 “베품을 위한 일이라 설명하면 단골처럼 주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 해운대 법륜사 조실 스님처럼 학생들의 교복 지원금을 직접 보시해 주시는 분도 계신다”며 “떡 판매금 중 인건비를 남겨 교복 지원금를 마련한다. 매년 25벌씩 소년소녀가장들과 종립 학교 학생들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의 평균 나이대가 60대를 훌쩍 넘어섰다. 회원들은 40년 활동이 아니면 보현행자라고 명함도 내밀 수 없다며 크게 웃는다. 벌써 90세를 넘어선 분들도 있다. 하지만 나눔행을 그만두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한다.

최춘자(74 · 다대동) 씨는 “집이 멀어 새벽 첫차를 타고 나오지만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어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다. 뿌듯함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다가 일이 마치면 쑤시는 곳이 있다”며 싱긋 웃는다.

조영희(64 · 구포동) 씨는 “떡 1개당 무게가 2.2kg을 넘으니 6개만 들어도 14kg이 넘는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5층까지 직접 계단으로 가져다주는데 팔이 빠질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일을 할 때는 추운지도, 힘든지도 모르겠다”며 웃어보였다.

회원들의 활동에 가족들의 동참은 필수다. 남편들은 복 짓는 일에 ‘강제동원’ 된다고 투덜대는 척 하지만 얼굴은 싱글벙글하다. 먼 곳에 떡 배달을 해야 할 때는 퇴근 후 망설임 없이 운전대를 잡는다.

전영자(61 · 명장동) 씨는 “6살 손자가 있다. 손자 재준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떡을 팔면 주민들이 그냥 지나치질 못하더라”며 “손자도 즐거워하고 어린 아이가 나눔을 위해 발로 뛰니 ‘산 교육’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족들이 나눔에 동참하니 회원들은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진다. 안성이 회장은 “학생들을 위한 나눔 활동은 매년 진행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새해를 밝고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마련된 교복금은 2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각 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며, 떡은 1월 7~25일 판매한다.

(051)636-4531

하성미 기자

스님이 가르쳐준 호흡 명상 ‘好好’

〈하오하오〉

범어사, 템플스테이 통한 계층 포교 ‘활짝’


금정총림 범어사가 1월 16일~17일 대만과 중국에서 찾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범어사 경내에서 진행했다.

대만과 중국서 온 대학생들은 허리를 펴고 앉았다. 차근히 설명들은 대로 결가부좌로 자세를 잡았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 쉬며 코끝과 배를 관찰했다. 호흡 명상을 체험하는 그 순간 산사에 고요함이 내려앉는다. 사찰의 참된 면모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월 16~17일 대만과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동아대 자매대학교인 중국 란주대학교와 대만 국립중정대학 등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까지 총 60여명이 동참했다.

학생들은 사찰 예절교육 습의를 비롯해 발우공양과 차담 및 명상, 새벽예불, 108배서원주 만들기 등에 참여해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사찰예절 시간에는 범어사 연수국장 지광 스님이 직접 명상자세와 차수, 절하기 등을 지도했다. 스님은 차수를 하고서 걷는 것은 산란해지기 쉬운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수행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전달했다. 또한 스님은 “합장할 때 한 손은 나 자신을,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며 “마음 모아 둘이 아닌 하나임을 표현하기 위해 합장으로 인사하고, 그 가운데에는 타인을 나 자신처럼 공경하겠다는 의미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호흡 명상을 직접 실참한 학생들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명상에 더욱 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류팡윈(23 · 대만) 씨는 “대만에서는 직접 템플스테이를 접할 수가 없다.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알아서 기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친짜후이(23 · 중국) 씨는 “한국 불교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오기 전에 108배에 대해 들었다. 기대도 많이 되고 스님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연수국장 지광 스님은 “1박2일 짧은 기간이지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며 “차분히 잘 알아차리고 잘 느껴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범어사는 2017년 새해 다양한 계층 포교에 앞장선다는 다짐이다. 특히 일본 33관음성지 순례팀이 3월말까지 매주 범어사를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아울러 4월 22~23일에는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자녀와 학부모 30명이 참가해 산사의 정취와 여유를 만끽하고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진다.

하성미 기자

천진불의 고운 화음, 세상을 맑히다

1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개최



천진불의 맑고 고운 화음이 객석을 채웠다.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하는 음성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환호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성원)는 1월 18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서 ‘제1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사진〉 ‘새처럼 날아라 별처럼 빛나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합창제는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제주 약천사), 상림어린이합창단(함양 서암정사), 대원선재합창단(영도 대원사), 단이슬어린이합창단(부산 관음사)이 참가했다.

합창제에 참여한 팀들은 부처님오신날, 스님 생각, 십대제자, 연꽃향기 등 찬불가 뿐 아니라 눈꽃송이, 색종이 마을, 초생달 등 일반 동요로 풍성한 무대를 장식했다. 아울러 최예림 · 전해옥의 가야금병창 ‘소리디딤’ 팀의 공연과 현직 음대 외래교수로 활동하며 찬불가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청공중창단이 출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전 출연자가 함께해 ‘나눠요’와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며 대미를 장식했다.

아울러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증명인 지현 스님은 각 합창단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오늘 천진불들의 합창으로 어른들 마음에 다시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어른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인 정토를 장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원력”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문화 교류로 가교 역할 할 것”

2017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신년하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 이하 한일불교협의회)는 1월 18일 부산 코모도 해마루 홀에서 2017년 신년하례를 개최하고, 새해 다짐으로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 내는 불교문화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사진〉

백명숙 회장은 “2017년에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한일 관계를 불교문화교류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13년 동안 여성부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던 것은 스님들의 가피와 기도,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임이사 종호 스님은 “여성 불교의 거목인 백명숙 회장님과 집행부들의 노고가 크다”며 “앞으로도 세계불교 포교에 앞장서는 여성부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달리는 포교사’ 정법호출택시 발대식



‘움직이는 법당, 달리는 포교사’ 대구 정법호출택시 발대식이 1월 17일 정법호출 혜림원 2층 법당에서 봉행됐다.〈사진〉 이 행사는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 신행단체인 정법호출택시가 정유년 새해 포교 원력을 세운 자리로,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대구 큰절 대륜 스님과 정법호출 이갑희 회장, 곽병해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총동문회장 등 회원 100여명이 동참했다.

대륜 스님은 “대구를 부처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달리는 포교사로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님의 정법 교육과 철저한 자기 수행, 성찰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갑희 회장은 “움직이는 법당, 달리는 포교사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더욱 매진하여 불국정토를 이루겠다”며 “포교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해내고야 마는 것”이라고 목표를 세웠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사찰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안전인증 ISO 9001 인증기업 ISO9001 ISO1400
특허청

연등(등표)사다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